

교육개혁안에 대한 학부모연대의 생각

전 풍 자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공동대표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는 5·31 교육개혁안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대학입학제도의 개선, 종합생활기록부제의 도입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부분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1988년부터 준비가 시작되어 1990년 봄에 창립된 학부모연대의 창립동기와 5년여에 걸친 활동을 통해 우리가 주장해온 내용들이 이번 개혁안에 잘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학부모연대는 대학입학의 병목현상으로 치열한 입시위주의 경쟁교육풍토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의 학습부담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아이들, 현대의 교육제도 아래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왜곡될 수밖에 없는 학부모의 교육의식, 사교육비 부담 그리고 교육의 본연을 상실해버린 중등교육의

실상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살아남기식 경쟁의 비인간적인 교육을 학부모가 연대하여 공동체적 인간교육으로 바꾸어 보자는 새로운 교육문화운동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로 출발하였다.

학부모연대는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중등학교에 고통만을 안겨주는 제도인 점을 직시하고 그동안 입시위주 교육의 청산과제로 국·영·수 중심의 대학별고사 폐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대학의 이기주의와 무소신을 그대로 반영하는 '하루 한날 입시'에서 실질적인 복수지원제의 보장과, 몰개성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총점·석차 중심의 상대평가제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번 교육개혁안이 제시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는 학부모연대가 원했던 대로 1997학년도부터 현행 국·영·수 위주

의 대학별고사를 폐지하고, 대학이 학생을 연 중 어느 때나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에게 실질적인 복수지원의 기회를 보장하고, 현행 15등급제 내신제도를 종합생활기록부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15등급 내신제는 매우 낭비적이고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전근대적인 비교육적인 평가방식이다. 총점·석차라는 하나의 잣대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특성과 장점이 무시되고, 소위 상위권에 속하는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좌절감만을 안겨 준다. 상위권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진로를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보다는 점수에 맞는 대학에 가기 때문에 입학 후에 학과가 자신에게 맞지 않아 고민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이다. 현행 15등급 내신제는 학생들을 교과목 점수 따는 일 이외의 다른 모든 활동, 즉 단체·봉사·특별 활동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 버린다. 청소년기에 필요한 활동들을 접어둔 채로 점수따기 교육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

종합생활기록부가 교과목별 성적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을 총체적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필수교과목 수를 줄이고 선택교과목 수를 늘리게 되면 학생 개인은 개성을 살리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다.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종합생활기록부를 필수 전형자료로 쓰고 종합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의 반영비율과 방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 교육 전반에 걸쳐 획일성을 탈피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문제 해결에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생활기록부를 상급학교 입학전형 자료로 이해하기에 앞서 초·중등학교의 교육결과로 이해하고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초·중등학교는 교육한 결과를 객관적이고

교육적으로 성실하게 기록하면 되는 것이고 상급학교가 이를 필요로 할 경우에 이 기록을 가져다 쓰는 것이어야지, 처음부터 상급학교에 보낼 자료로, 즉 상급학교를 위해서 작성해야만 하는 기록부이어야 한다면 이 제도가 중등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힘들 것이다.

종합생활기록부제의 도입은 학부모의 학교점수 위주의 교육관을 바꿔놓을 것이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대다수가 자녀점수 콤플렉스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어서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자녀 점수 경쟁의 후원자가 되어 가계가 휘청거릴 정도의 과외비를 쓰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입시산업, 학원, 과외가 성업중이고 결국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능가하고 사교육은 확대되고 공교육은 위축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보다는 학원과 과외를 더 신뢰하는 '사교육 의존증후'를 나타내고 있다. 흔히 한국교육의 문제는 학부모의 가족이기주의와 빗나간 교육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학부모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지 않고는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학부모의 이기주의나 빗나간 교육열은 잘못된 교육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종합생활기록부제가 잘 정착되면 학부모의 교육관이 변화될 것이고 실추된 학교교육의 권위가 회복될 것으로 믿는다.

이번 신교육체제의 비전과 특징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 교육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의 전환, 규제중심의 교육운영에서 자율중심의 교육운영으로의 전환 그리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특성화된 학교의 설치 운영이다.

자아실현을 위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교육이 개방체제, 평생교육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긍정적이다. 지금까지

대학 입시철마다 온 나라가 입시지옥에 묶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가지 않으면 인생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번 교육개혁안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고 국민의 대학교육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면에서 국민편에 선 개혁안인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들은 편하게 앉아서 좋은 학생을 뽑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여 온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에 의하여 선택되지기만을 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인간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했다. 앞으로는 대학의 학생선발권보다는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의 비중이 커지게 되어 있으므로 대학은 물론이고 중등학교도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사실 지금까지 교육수요자가 경쟁하고 노력한 것에 비하면, 교육공급자인 학교, 특히 대학들은 안일 무사한 편이었다.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공급자간의 질 경쟁은 필수적이다. 소위 우리가 일류라고 말하는 학교가 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일류에 속하는 것이었지, 그 학교의 교육내용, 시설·설비, 교원이 일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선택권이 주어지며, 학교가 다양화 특성화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신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인 더불어 사는 인간, 슬기로운 인간, 열린 인간 그리고 일하는 인간은 현재의 입시위주 교육상황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인간상이다. 그러나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개방화 사회에 걸맞은 인간상이라고 생각한다. 21세기에 개인이 성공적으로 적응해가는 데 필요한 특성인 공동체의식, 창의성, 한국인의 정체성, 국제적인 감각 그리고 자율성이 신교육 체제를 통해 잘 길러져야 할 것

이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개혁 방안 중에서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보장해 주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학부모연대의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학부모가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됨을 의미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었던 통로로 후원회, 기성회, 사친회 그리고 육성회가 있었는데, 이들 학부모회는 학부모들만 따로 모아놓은 모임으로서 학부모의 역할은 소극적인 재정적 후원자의 역할이 고작이었다. 학부모연대가 그간 활동을 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한국 학부모들의 왜곡된 교육의식과 치맛바람은 생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교육에 대하여 공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관심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결과라는 점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은 철저히 사적이고 이기적인 차원에 머물게 되었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잠재력이 그냥 사장되어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가 국·공립학교에는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사립학교에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중등교육에 사립학교의 비중이 크고 사립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도 국·공립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처럼 다 같은 교육수요자들이므로 사립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학부모연대는 교육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에서 개

별 개혁과제들의 구체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개별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집단간에 갈등과 기득권자들의 보수주의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교육개혁이 시작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예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번 개혁안에서 종합생활기록부의 정착이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를 담당해야 할 교사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번거롭고 복잡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몰아부친다. 물론 교과목에 따라 교사가 이를 담당하기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나, 우선 시행을 하면서 여건을 조성하고 보완해가야 할 것이다.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는 중·고등학교의 선 복수지원, 후 추천제도도 벌써 벽에 부딪혀 있다. 구체안 마련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과 진정이 있었다고 해서 이의 추진을 책임지고 해내야 할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이 제도 시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감은 지역주민들이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책임보다는 시행을 유보시키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소극적 자세로는 개혁의 성사가 불가능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에 나왔던 추진일정보다 훨씬 후퇴했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학부모와 가능한 지역인사들을 참여시켜 단위학교가 명실상부한 교육자치를 실현해 가도록 추진해야 할 교장과 교원단체가 학부모를 학교운영에 참여시키면 교장을 '간섭'

하게 되므로 무조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는 식으로 이 제도의 진의를 희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진행상황을 보면 교육개혁을 이끌어야 할 주요세력들이 그야말로 교육개혁의 원론 찬성·각론 반대라는 식의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교육개혁안에 제시된 하나하나의 개혁과제는 다른 개혁과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삶은 과제는 다 삭제해 버리고 몇 개만 시행하면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부모연대도 몇몇 개혁과제에 대하여 우려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교육개혁의 기본취지를 저버리고 지금보다 더 과열경쟁을 조장하는 요소로 작용하면 안 된다는 염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개별과제는 어디까지나 개혁의 기본방향과 전체구조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교육개혁의 전체구조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부모연대는 앞으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시민운동단체로서 교육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

전종자/연세대학교 교육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튀빙겐 대학교에서 교육학과 박사과정을 수학하였다. 연세대 강사를 거쳐 현재 한국방송위원회 연례오락 심의위원과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공동대표로 활동중이다. 저서로 『세계의 취학전 교육』(공저)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교육자원 선용에 관한 연구", "놀이교육론", "상황중심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을 발표하였다.